

## 1. 전시관 소개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전시관을 찾아주신 관람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는 건축문화유산 수리 과정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교체된 부재들 중 연구가 필요한 부재를 수집했습니다. 이곳 상설전시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2022년까지 20년간 수집한 부재를 선보입니다. 전통건축의 부재에는 장인과 도구, 치목과 결구 방식, 단청과 초각, 묵서, 보수한 흔적 등 다양한 기억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크고 작은 수리를 겪던 전통건축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부재의 모습에서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1 전시관 입체도면



그림 2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전시관 A존 3D 실내도면



그림 3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전시관 A존 실내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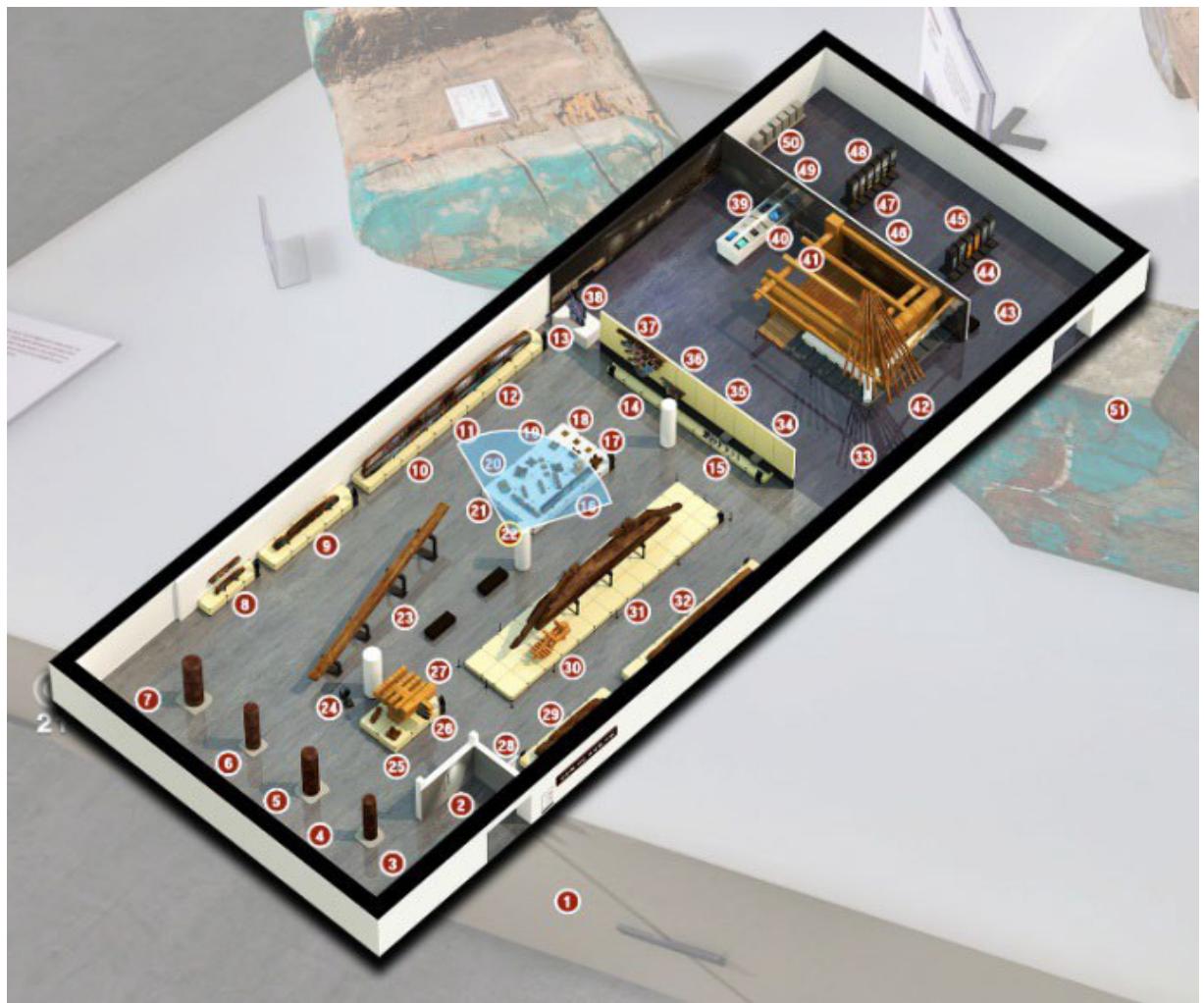


그림 4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전시관 B존 3D 실내도면



그림 5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전시관 B존 실내사진



그림 6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전시관 C존 3D 실내도면



그림 7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전시관 C존 실내사진



그림 8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전시관 D존 3D 실내도면



그림 10 야외전시관 : 아재당

## 2. 완주 화암사 극락전 서측면 뒤쪽 고주

전시관내 위치 : A존(4개)

완주 화암사 극락전 서측면 뒤쪽 고주



완주 화암사 극락전의 서측면 뒤쪽에 사용된 기둥입니다. 극락전에 설치된 기둥은 총 열 두개인데 건물의 양측면에는 고주가 각각 두개씩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기둥은 서측면의 두개 고주 중 뒤쪽에 세워진 기둥입니다. 기둥의 모습은 아래에서 위로 가늘어지는 민흘림 형태입니다.

전통 목조 건축은 여러 개의 부재를 맞추어 하나의 건축물을 완성하기 때문에 서로 결합 할 수 있도록 부재에 구멍이나 홈을 냅니다. 이 기둥 역시 홈을 살펴볼 수 있는데, 아랫 부분에는 바닥을 구성하는 '하인방'이라는 부재와 결합할 수 있도록 '쌍장부홈'이 나 있습니다. 윗부분 옆면에는 벽체를 이루는 '창방'이라는 부재와 결합되는 홈이 있고, 기둥의 가장 꼭대기에는 '하앙', '뜬장여'라는 부재가 조립될 수 있도록 십자가 모양으로 다듬어 져 있습니다.

고주의 나이테 절대연도가 1586년으로 조사되어 화암사가 다시 지어졌던 1605년에 사용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둥은 안쪽 부분에 충해 피해를 입고 부식되어서 2000년 극락전 수리 때 교체되었습니다.

### 3. 완주 화암사 극락전 동측면 뒤쪽 고주

전시관내 위치 : A존(4개)

완주 화암사 극락전의 동측면에 사용된 두개의 고주 중에서 뒤쪽에 설치되었던 기둥입니다. 동측면에 사용된 고주는 서측면을 지지하는 기둥에 비해 직경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기둥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모두 충해 피해를 입어 내부에 구멍이 생기고 갈라짐이 발생하여 2000년에 수리할 때 교체되었습니다.

서측면 기둥과 마찬가지로 기둥 가장 위쪽 끝부분을 십자가 모양으로 다듬었는데, 이 모양을 화통가지 또는 사개로 부릅니다.

#### 4.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 북서 귀잡이주

전시관내 위치 : A존(4개)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에 설치되었던 귀잡이주입니다. 귀잡이주는 '귀접이보'라는 부재가  
처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데에 사용해서 생긴 이름입니다. 법주사 대웅보전에는 귀접이보  
가 처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네개의 귀잡이주가 사용되었는데 이 기둥은 그 중 북서쪽에  
설치되었던 것입니다.

연륜연대 조사 결과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최외각의 나이테가 1578년 이후에 형성된 것  
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주사 대웅보전은 1618년에 다시 지어졌으니 그 당시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잡이주는 윗부분에 단청이 남아있으며 연꽃 문양 아래 색띠를 그려넣은 단청 문양인  
드림주의라는 문양으로 장식했습니다.

## 5.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 동측 중앙 내진고주

전시관내 위치 : A존(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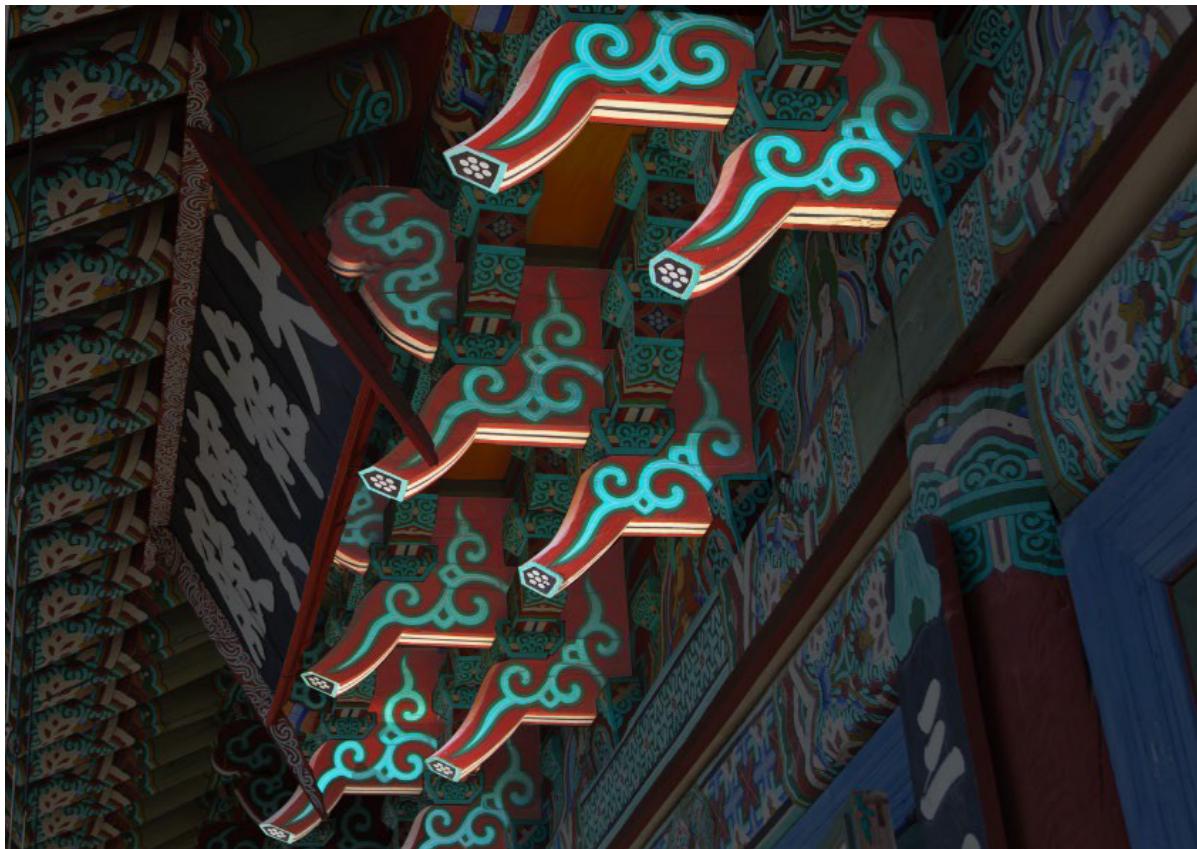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에 사용되었던 내진고주입니다. 법주사 대웅보전에는 건물의 둘레를 구획하는 스물두개의 '외진주'라는 기둥과 내부의 건물구조를 받쳐주는 열네개의 '내진고주'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전시된 기둥은 그 중에서 건물 동쪽의 가운데를 지지해주는 기둥입니다.

법주사 대웅보전은 19m에 달하는 높은 건물이기 때문에 한 개의 목재로는 높이를 맞출 수 없어 2~3개의 나무를 이어서 만들었습니다. 전시된 기둥은 세개를 이어 완성했는데 그 중 가장 아래에 위치했던 부분입니다.

기둥이 심하게 부식되고 갈라짐이 발생하여 2005년 수리 공사 때 교체되었습니다.

## 6. 서산 개심사 대웅전 살미

전시관내 위치 : B존(16개)



개심사 대웅전에서 사용했던 '살미'라는 부재입니다. 살미는 공포라는 구조부를 이루는 부재인데, 공포는 여러 부재가 조합된 것으로, 기둥 위이자 지붕 아래에 위치합니다. 여러 부재중에서 살미는 공포 구조부에서 기둥과 수직 방향으로 빠죽 튀어나와 있는 부재에 해당합니다.

개심사 대웅전의 공포는 기둥 중심을 기준으로 내3출목, 외2출목으로 되어있으며, 4개의 살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살미인 '초제공'과 두 번째 살미인 '이제공'은 끝부분이 아래로 뾰친 쇠서형의 모양이고, 세 번째 살미인 '삼제공'은 삼분두 형태이며, '사제공'은 삼분두 형태와 가깝게 다듬었습니다.

살미의 두 가지 모양을 모두 살펴볼 수 있도록 상단에는 삼분두 형태로 다듬은 '삼제공'이, 하단에는 쇠서형으로 조각한 '초제공'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 7.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 상층 퇴량

전시관내 위치 : B존(16개)



퇴량은 우리말로 퇯보라고도 하는데 건물의 바깥에 있는 기둥인 평주와 건물 안쪽 기둥 중 가장 높은 기둥인 내진고주를 수평으로 이어주는 부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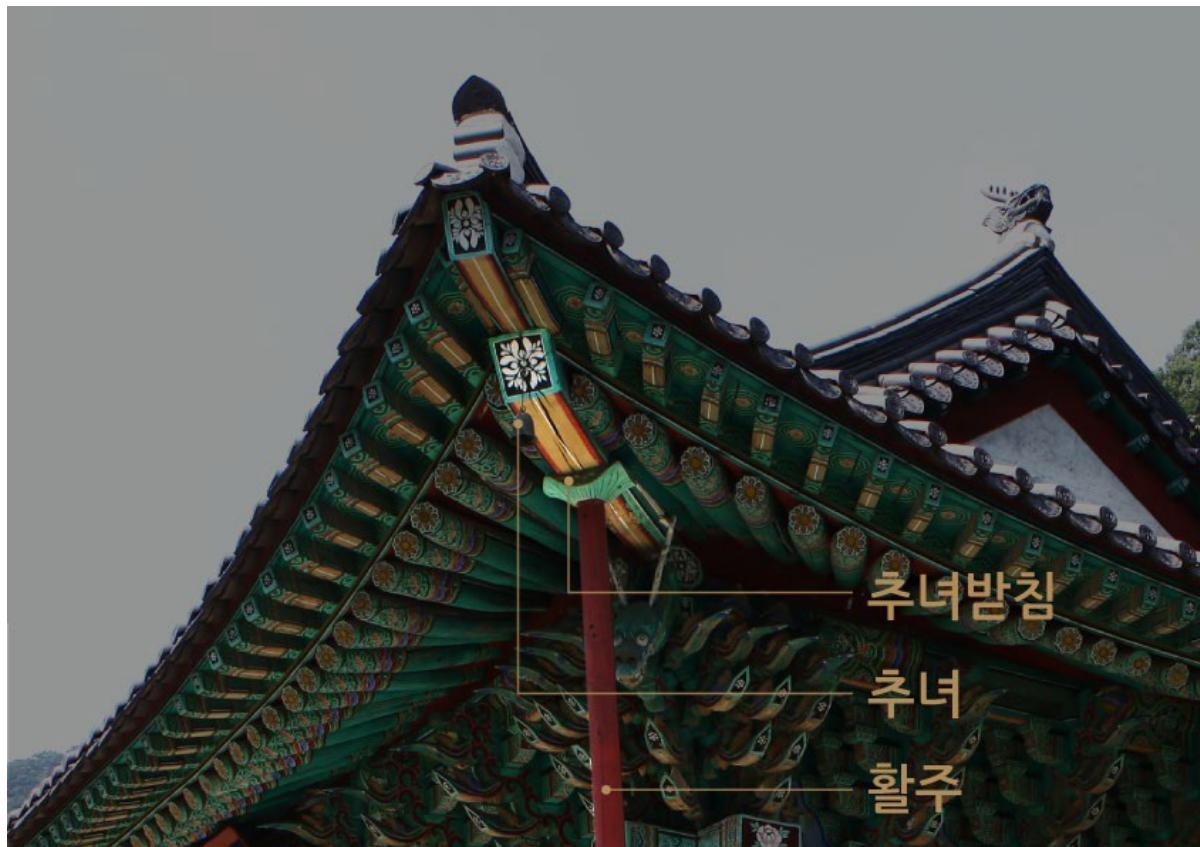
퇴량과 내진고주 맞춤기법은 1618년 중건 당시에 사용한 '내림 주먹장 맞춤 기법'과 1830년 보수 시 사용한

'통넣고 산지촉 맞춤 기법' 두 가지 방식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시된 퇴량은 중층건물인 법주사 대웅보전에서 상층에 설치되었던 퇴량입니다. 상층 퇴량은 오른쪽 끝부분에 주먹장부가 나 있고 '내림 주먹장 맞춤 기법'으로 결구되어 있어 1618년 중건 당시 설치되었던 부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 8. 나주 불회사 대웅전 추녀, 추녀받침

전시관내 위치 : B존(16개)



추녀는 지붕의 모서리를 만들어 주는 부재입니다. 우진각지붕, 팔작지붕 등처럼 건물의 사면에 지붕이 형성되는 경우 지붕 모서리가 생기는데, 추녀는 바로 이 모서리를 형성하고  $45^{\circ}$  각도를 이루게 만들어 줍니다.

불회사 대웅전의 추녀는 몸통과 뒷뿌리가 엇걸이 산지 이음 방식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부재를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추녀 받침은 추녀를 받쳐주는 부재입니다. 추녀가 처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활주'라는 기둥을 세워서 추녀의 아랫부분을 지탱합니다. 추녀 받침은 활주 가장 윗부분에 올려져서 추녀를 받쳐줍니다.

불회사 대웅전에 사용된 목부재의 종류는 크게 소나무, 활엽수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포 부분을 이루는 부재나 연목 등에는 소나무가 쓰였는데, 기둥, 평방, 도리, 귀틀 등 대부분의 부재는 졸참나무와 같은 활엽수종이 사용되었습니다. 전시된 추녀는 두 종류의 나무가 모두 쓰였는데 졸참나무는 몸통에 소나무는 뒷뿌리에 사용하였습니다.

## 9.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 대량

전시관내 위치 : B존(1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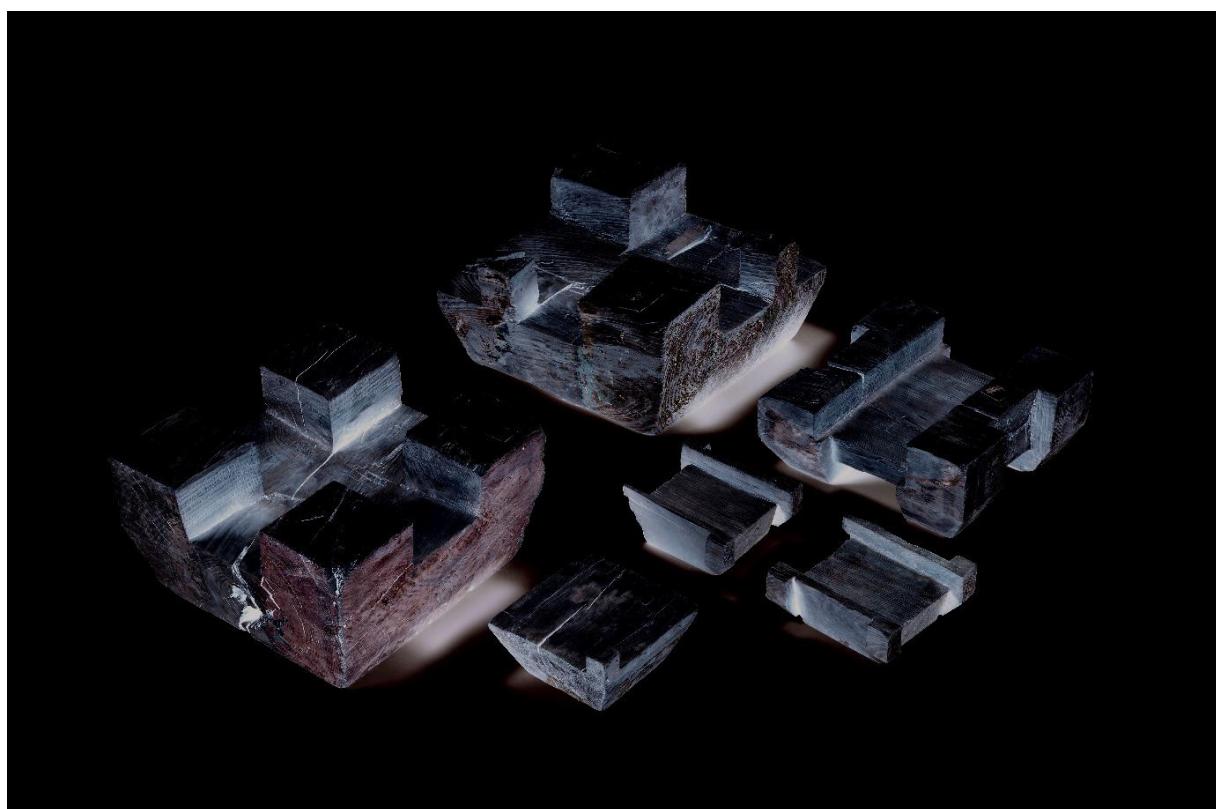
대량은 건물 앞쪽의 기둥과 뒷쪽의 기둥을 수평으로 연결하는 부재이고, 우리말로는 대들보라고도 합니다.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에 설치된 대량은 총 여섯개인데 수리공사 당시 서쪽에 있는 협칸과 어칸의 대량이 심각하게 부식되어 교체되었습니다. 전시된 부재는 서쪽 협칸의 대량입니다.

서측 협칸 대량은 두개의 목재를 겹쳐서 하나를 이루는 '겹보'입니다. 각 목재가 서로 맞닿는 면을 평평히 다듬은 뒤 네모난 측을 끼워서 결구시켰습니다.

대량의 양 끝부분은 문양을 장구 모양으로 배치한 장구머리초 양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머리초 끝부분은 색 띠무늬인 인휘로 장식하였고, 양쪽 머리초 사이 공간인 계풍의 경우 상단에는 운룡문, 하단에는 비단무늬인 금문으로 단청했습니다.

## 10. 산청 율곡사 대웅전 주두·소로

전시관내 위치 : B존(1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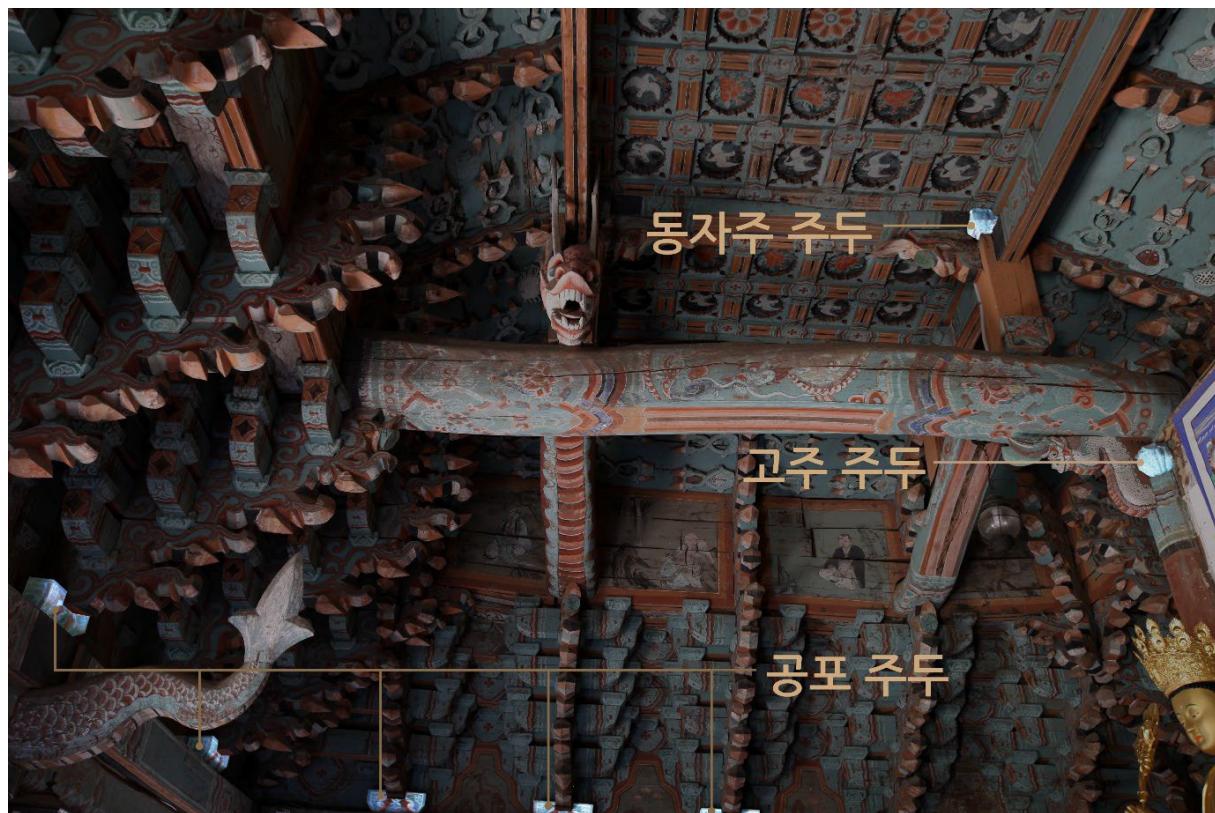
공포란 처마를 더 길게 뻗도록 도와주고 무게를 균등하게 받칠 수 있도록 하는 지붕 받침대입니다.

주두는 공포의 가장 하부를 구성하는 부재입니다. 주두는 하부와 상부로 나뉘는데 하부의 역사다리꼴 모양은 굽이라고 하며 상부는 운두라고 부릅니다. 형태와 용도에 따라 명칭이 구분되는데, 대표적으로 상단에 십자 모양의 홈이 파져있는 사갈주두가 있습니다.

소로는 주두와 모양은 같지만 크기가 작은 부재입니다. 중간 사이 공간에 놓여 상·하부 부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로의 명칭 또한 형태와 용도에 따라 명칭이 구분되며, 주두와 소로는 모두 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 11. 나주 불회사 대웅전 주두·소로

전시관내 위치 : B존(16개)



나주 불회사 대웅전에 사용된 주두는 총 세 종류로 평방 위에 놓여 공포 부재를 받는 주두, 고주 위에 놓여 대량을 받는 고주 주두, 동자주 주두입니다.

대웅전에 쓰인 소로는 사갈소로, 알통보강 사갈소로, 양옆갈 이갈소로, 이갈소로, 접시 소로 등 다양한 종류가 사용되었습니다. 전시 부재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서로 색이 다른 면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시기에 칠해진 단청입니다. 기법과 재료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역사의 흐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12. 익산 승림사 보광전 살미·주두·첨차

전시관내 위치 : B존(16개)

벽면에 전시된 일곱개의 부재들은 익산 승림사 보광전의 공포를 구성하는 주두와 살미, 첨차라는 부재입니다. 공포를 구성하는 여러 부재들은 주두에서 십자로 조립되는 것을 시작으로 필요한 부재가 알맞은 위치를 만들어가며 결구됩니다. 그 중 살미는 주두를 정면에서 봤을 때 수직으로, 첨차는 수평으로 결합됩니다.

공포는 건물의 처마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정면과 뒷면에 모두 있는데 전시된 부재들은 정면의 공포를 이루었던 부재로 다채로운 모양을 갖춘 점이 특징입니다. 주두의 정면은 연잎을 형상화하여 초각하였습니다. 살미 네개 중 첫 번째 살미부터 세 번째 살미는 끝부분을 위로 솟아오른 형태인 앙서형으로 만들었습니다. 네번째 살미는 구름처럼 둥글게 생긴 운공형으로 초각하였습니다. 첨차의 양 끝부분은 연꽃의 정면을 본 딴 연화두형으로 초각하였습니다.

### 13. 서산 개심사 대웅전 퇴랑

전시관내 위치 : B존(1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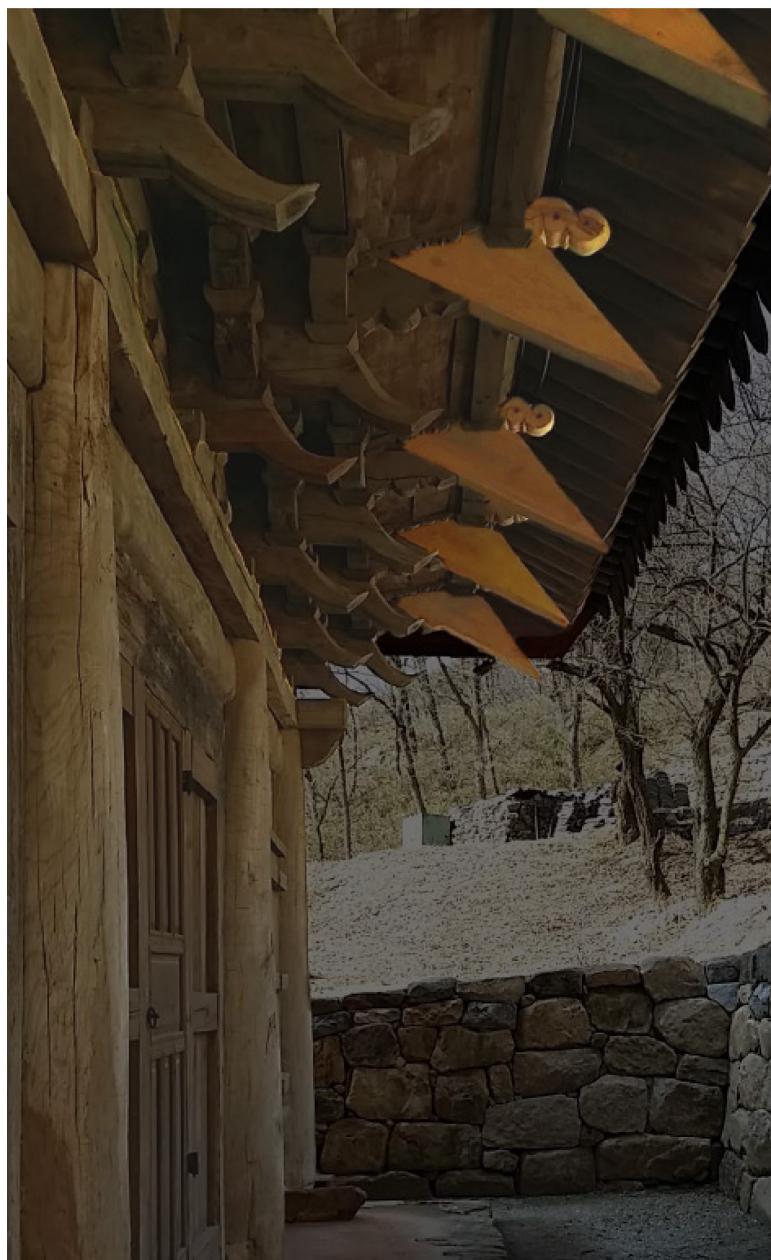


서산 개심사 대웅전의 수리공사 때 대웅전 내 모든 퇴랑에 문제가 있던 게 확인되었습니다. 전시된 퇴랑은 갈라짐과 흠 문제로 교체되었습니다.

건물 정면으로 나오는 끝부분은 삼분두형으로 다듬어져 있습니다. 부재 하부에는 첨차와 결구하기 위한 맞춤턱이 있으며, 소로와 결구하기 위한 두개의 홈이 남아 있습니다.

## 14. 완주 화암사 극락전 대량·하양

전시관내 위치 : B존(16개)



완주 화암사 극락전에는 대량이 총 두개가 있는데 어칸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시된 부재는 그 중에서 대량에 하양이 경사지게 설치된 경우입니다. 바닥과 수평으로 위치한 부재가 대량이고, 대량의 양 끝부분에 사선으로 결구된 것이 하양입니다. 두개의 하양 중 용이 여의주를 쥐고 있는 몸통으로 초각된 부분이 건물의 정면으로 돌출되는 쪽이고, 사선으로 간략하게 처리한 부분이 건물 배면으로 돌출되는 쪽입니다.

대량 좌측 표면에 부후로 인한 큰 구멍이 뚫려 있으며 녹색 안료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 이 보입니다. 그 반대편 면은 비교적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피해흔적이 적으며 목재 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현존하는 문양과 다른 옛 단청문양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희미하긴 하나 부재 양 끝단에 연꽃 문양을, 가운데 부분에는 용 문양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도리라는 부재는 대량의 윗부분에 맞대어 설치되면서 건물의 지붕을 지탱합니다. 그러나 하양이 설치되면 하양이 도리를 지렛대 형식으로 떠받치면서 처마도 더 길게 만들 수 있고, 내부 공간도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목조건축물에서 하양이 발견되는 건 완주 화암사 극락전이 유일합니다. 건물 정면 하양의 최외각 나이테는 1602년에 형성되었고, 배면 하양은 1604년에 별채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화암사 극락전이 지어졌던 1605년과 가까워서 건립당시 사용된 부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15.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 공포

전시관내 위치 : B존(16개)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의 공포를 재현한 구조물입니다. 공포는 기둥 윗부분, 처마 아래에 위치하여 주두, 소로, 첨차, 살미 등이 짜 맞추어진 구조입니다. 지붕부의 하중을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구조적 역할을 하며 건물 내부의 공간을 수직으로 확장시키고 외부를 웅장하게 보이도록 하는 의장적인 역할도 합니다.

법주사 대웅보전은 2개의 층으로 된 중층 건물이며 2개 층에 모두 공포가 있습니다. 같은 건물이라고 해서 공포의 구조와 부재의 모양이 같은 것이 아니며 심지어 건물의 정면과 배면의 공포도 서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상층의 공포는 '내외 3출목' 구조이며, 하층의 공포는 '내외 2출목' 구조로 상층에 비해 간결합니다. 전시된 공포는 하층 뒷면의 주간포의 모습을 재현하였고, 모양이 같은 경우, 상층의 공포를 이루던 부재 일부를 활용하여 만들었습니다.

## 16. 익산 송림사 보광전 창방·평방

전시관내 위치 : B존(16개)



익산 송림사 보광전의 창방과 평방입니다. 상단에 전시된 부재가 창방인데, 기둥 윗부분의 양 옆에 조립되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해주는 부재입니다. 기둥과 결구되는 부분은 모서리를 깎아 좁은 면을 내거나 둥글게 하여 모접기를 하였습니다. 창방 중 건물의 모서리에 있는 기둥과 결구되면 끝부분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을 창방 뺄목이라고 합니다. 보광전의 창방 뺄목은 하단부가 초각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전시된 부재는 단아하게 초각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단에 전시된 부재는 평방이며 창방 위에 올라가는 부재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가 올라가는 다포형식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보광전의 정면과 배면에 모두 평방이 사용되었고, 길이가 짧은 평방인 단평방과 반턱맞춤으로 결구되었기 때문에 포개진 부분이 높이의 반만큼 파여진 것이 보입니다.

## 17. 안성 석남사 영산전 창방·평방

전시관내 위치 : B존(16개)



안성 석남사 영산전의 창방은 가로로 긴 사각형 형태를 띕니다. 뺨목에는 넝쿨을 그리고 연화두식으로 초각하였습니다.

왼쪽 방향에는 색이 칠해지지 않아 나무색이 그대로 보이는 구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곳은 기둥 상부에서 직교하는 창방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창방이 서로 이어지는 부분은 반턱맞춤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끝단에는 통통한 몸에 긴 목을 가진 호리병 모양처럼 단청문양을 구성하였으며, 이것을 병머리초라고 부릅니다. 중심에는 장수를 의미하는 학이 우리와 눈을 마주치며 비단무늬 안에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평방은 창방 위에 얹어지는 부재로 만(丸)자 문양이 창방의 학문 바로 위에 보이도록 그려넣었습니다.

## 18.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 대량

전시관내 위치 : B존(16개)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은 벽체를 구성하는 16개의 기둥이 있고, 건물 내부에는 8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내부의 8개 기둥은 앞, 뒤로 네개씩 서 있는데, 대량은 바로 이 네쌍의 기둥을 앞, 뒤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보 머리 부분에 반원형으로 패인 부분에는 지붕을 지탱하는 도리가 맞춰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주두가 송어턱 맞춤으로 조립됩니다. 송어턱 맞춤을 할 수 있게 도리를 얹히는 부분이 얇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 19.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 종량

전시관내 위치 : B존(16개)



대적광전의 종량은 건물의 앞쪽과 뒤쪽을 수평으로 이어주는 부재인데, 전시된 것처럼 대량보다 위에 위치합니다. 천장과 가깝기 때문에 이어주는 길이 자체도 짧아져 대량과의 길이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적광전 종량의 특별한 점은 부재 표면에 글씨가 적혀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건물 부재에 직접 적는 글은 '상량문'이라고 하고, 종도리라는 부재에 적지 종량에는 글을 적지 않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리를 찾아서,

양강 이직지

순성 유군성

1626년 서쪽을 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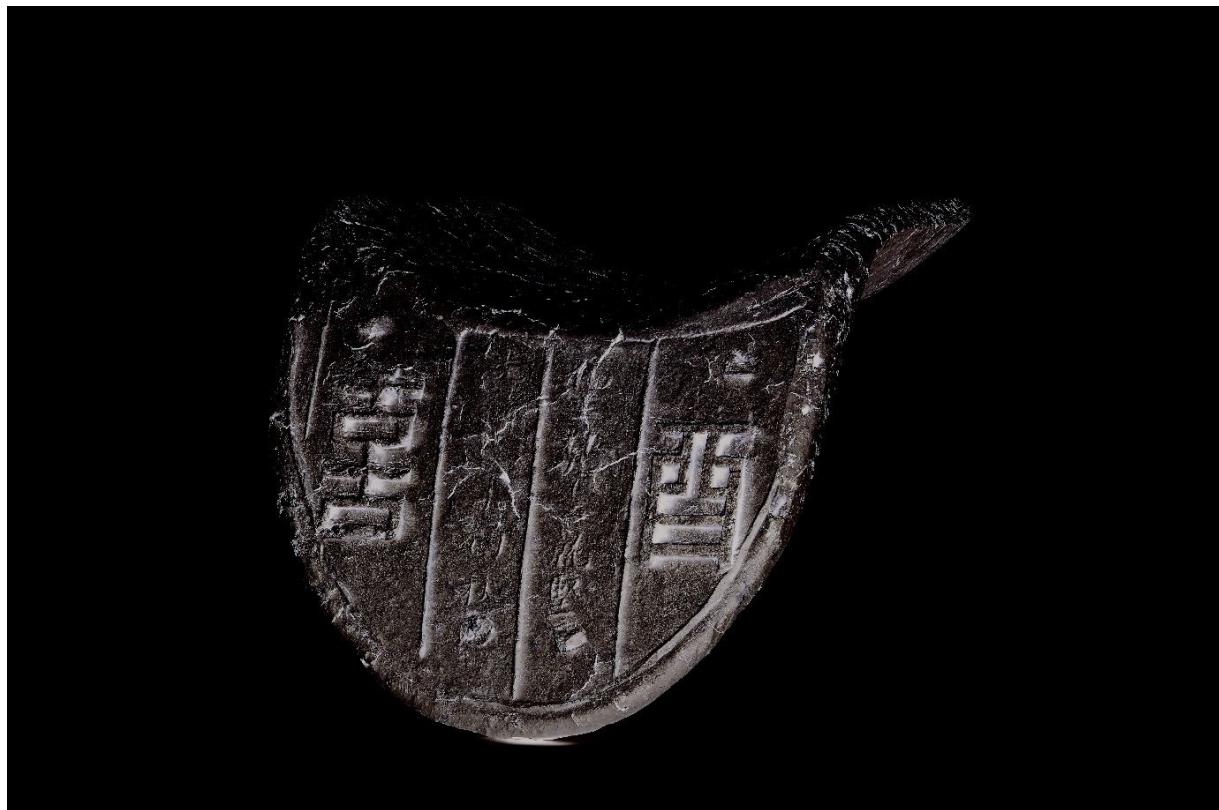
4월 12일에 씀.

글을 남긴 시기상 초파일을 앞두고 관등행사를 즐기러 귀신사에 온 이직지, 유군성이라는 사람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귀신사 대적광전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면 1873년에 재건되었고, 중층건물에서 단층건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글이 적힌 시기는 재건 시기보다 더 이전으로 건물 형태가 바뀐 시기 이전에 사용된 부재로 보입니다.

## 20.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암막새

전시관내 위치 : B존(16개)



암막새는 지붕 가장자리에 설치되는 막새기와 중 하나입니다. 막새기와는 수막새와 암막새로 나뉘는데 모양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막새기와의 아래를 향해 접힌 끝부분을 드림새라고 하는데, 이 드림새가 원형일 경우 수막새, 뒤집어진 눈썹 모양의 경우가 암막새입니다.

드림새는 문양이나 글, 제작 시기 등을 새겨 꾸밉니다. 대적광전 암막새에는 제작 시기를 추측할 수 있는 '희유'라는 글자와 '광서 초추', 그리고 해인사의 여러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한 사람의 이름인 '범운취견'이 적혀 있습니다. 문자를 모두 조합해보면 1885년 초가을이라는 시기와 범운취견이라는 스님을 기념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 21.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암막새

전시관내 위치 : B존(16개)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은 고려시대에 만든 대장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로, 해인사에 남아 있는 건물 중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전시된 부재는 이러한 장경판전에 설치되었던 암막새로 드림새의 시기를 알 수 있는 '무술년'과 장소를 상징하는 단어인 '금국'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지붕이나 기와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기와를 새로 구워 교체하는데 이때 제작시기를 글자로 남기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금국은 '금인의 나라'라는 뜻으로 부처님의 나라이 불국토라는 표현입니다. '무술년'은 60년마다 돌아오는 시기를 표현하는 단어라 여러 연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인사의 많은 건물들이 재정비되던 시기가 범운취견이라는 사람이 해인사로 왔던 1888년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무술년 중 1898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2. 승례문 상층 문루 재현물

전시관내 위치 : C존(2개)

승례문은 한양도성의 남쪽에 위치한 문으로 남대문으로도 불렸습니다. ‘예를 송상한다.’는 뜻을 가진 승례문은 사대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던 문으로 중국에서 온 사신도 이곳을 통해 도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승례문은 1396년부터 1398년에 걸쳐 건립된 후 1447년에 한 차례 개축된 것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961년부터 1963년에 있었던 해체·수리 시에 발견된 상량 묵서를 통해 1479년에도 비교적 큰 규모의 수리공사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어느 시기에 변경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건립 당초 지붕 형태는 평양 대동문이나 개성 남대문과 같이 팔작지붕이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2008년 2월 10일 화재 사건으로 훼손된 승례문을 복구하기 위해 전통적인 도구와 재료, 기법과 기술뿐만 아니라 최고의 기능을 갖춘 대목장, 석장, 번와장, 제와장 등이 공사에 참여했으며 각종 고증 조사와 연구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문화재 수리 체계와 문화재 방재시설 등에 대한 개선계획도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 승례문 복구 사업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문화유산 복원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특수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론 및 기타 매체 등이 알리면서 국민들에게 문화유산 ‘복구’와 ‘복원’에 관심을唤起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승례문 화재 이후 국가유산청에서는 문화재 종합방재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지정하는 등 문화유산의 재난과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는 건축문화유산 수리과정 중에 교체되는 부재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며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17년에 건립되었습니다. 건립 이후 경복궁 부재 보관소, 부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전통건조물 부재보관소,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승례문 화재수습 부재를 이관 받았고, 이관 후에는 건식세척과 훈증살균 등의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 중인 부재는 분류체계를 만들어 기본정보와 이력정보를 정리하여 통계를 내고, 전자태그 기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의 정확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에서는 수장고 및 전시실에 보관 중이던 화재수습 부재를 재사용하여 승례문의 일부를 재현하였습니다. C존에서는 화재를 입은 승례문 내부 부재와 공포부, 겹처마인 모습과 서까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시관 2층으로 가시면 추녀와 그 위에 설치된 사래, 양 옆에 배치된 선자 서까래, 개판 등 완성된 건축물에서는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여러 부재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3. 승례문 취두

전시관내 위치 : C존(2개)

승례문 지붕에서 가장 윗부분인 용마루 중 양쪽 끝에는 장식기와인 취두가 얹혀 있습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독수리 머리'를 의미하지만 실제로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용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장식기와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취두와 함께 B존에 있는 잡상도 장식기와에 해당합니다. 취두와 잡상은 좋은 기운을 불러온다는 길상의 의미, 화재를 예방한다는 의미, 나쁜 요소를 예방한다는 벽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취두는 궁궐 등 격식있는 건물에 설치되는 장식기와로 시대적 특징을 보여줍니다. 승례문과 같이 조선시대 건물에는 취두를 올려 장식하였는데, 조선 이전 시대에는 지붕의 가장 윗부분에 취두가 아닌 치미를 사용했습니다.

전시된 취두를 자세히 보시면 삼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는 전체 형태가 매우 커서 만들 때 삼등분으로 나눠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윗부분에는 날아오르는 비룡이 새겨져 있고, 중간부분에는 눈과 코, 갈기, 아랫부분에는 송곳니와 갈기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008년 화재 사건 당시 훼손되어 파손편이 43개 이상 나올 만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조각을 모두 수습하여 경화처리, 접합, 보강, 성형 등의 보존 처리 과정을 통해 이전의 외형과 가깝게 복원하였습니다.

## 24. 철재

### 전시관내 위치 : D존(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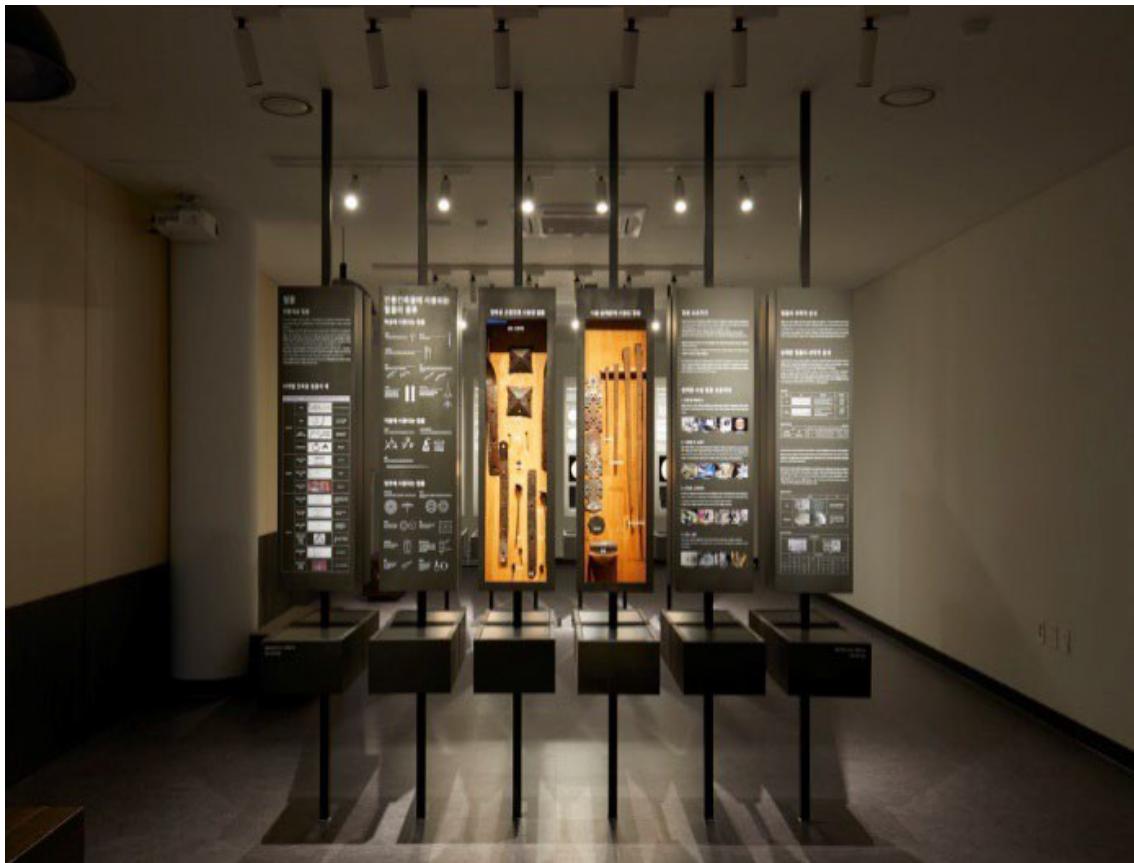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철물이 언제부터 사용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문헌 자료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철물의 특성상 목조 건축물을 만들기 시작한 삼국시대부터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목조 건축물에는 철로 만든 부재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로 목부재에 장부를 내거나 나무로 만든 촉을 사용해서 '맞춤'과 '이음'이라는 방식으로 결구하는 방법이 발달하였다라는 의미이지 철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오래된 철물 부재는 삼국시대 유적지에서 출토된 관정, 꺽쇠, 쇠못 등입니다. 이러한 철물들은 가장 간단한 구조용 철물 또는 문고리, 경첩 등 꼭 필요한 장식용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경우 현재 남아 있는 목조 건축물을 통해 이전 시대와는 다르게 다양한 형태와 목적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시된 철물은 조선시대에 사용한 철물 부재입니다. 재단에서 수집한 부재 중 경복궁 근정전과 숭례문에 사용된 정, 띠철, 감잡이쇠, 방환, 받침쇠 등입니다.

## 25. 목재

전시관내 위치 : D존(3개)



목재는 지구상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유일한 천연재료로 가공이 쉬워서 인류 초기 부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나무가 자생하지만 지금 두 열에 전시된 목재 샘플은 모두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에서 목부재로 활용된 종류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에 가장 많이 사용된 목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림수목인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는 목재로서 가치가 매우 높아서 조선시대에는 봉산을 지정하여 국가적으로 보호 관리하였으며, 궁궐 건축에 사용된 소나무들은 강원도, 황해도, 전라도 등 전국에 분포하는 질 좋은 목재를 별목하여 바다와 강을 통하여 한양까지 운반하였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궁궐, 사찰, 민가 등 대규모 복원공사로 소나무 수급이 부족하여 경복궁 근정전, 경회루 및 서울 흥인지문에서는 기둥, 보 등 대경 목재에 곧게 자라는 전나무가 일부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축물에 사용된 수종의 통계를 살펴보면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는 참나무류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고려시대로 들어오면서 느티나무와 소나무가 참나무류보다 많이 사용되었고, 조선시대부터는 건축물의 대부분에 소나무가 사용되었습니다.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에서는 전통건축 연구의 일환으로 나무 종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부재에서 횡단면, 접선단면, 방사단면이 모두 포함되도록 절편을 채취한 뒤, 이 조각의 세포벽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수종분석을 진행합니다. 또한 목부재의 나이테 패턴을 분석하여 연대를 측정하는데, 이를 통해 제작 연대가 밝혀지지 않는 목재의 벌채 시기를 알 아낼 수 있습니다.

## 26. 석재

전시관내 위치 : D존(3개)

석재는 자연에서 만들어진 암석으로부터 채취하며, 석재의 사용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였습니다. 석기시대부터 돌을 이용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거석기념물, 돌무덤 등 시대 권력의 표현으로 석재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석조는 세계 여러 나라 문화에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이면서 독특하게 사용되어 시대를 대표하는 조형 문화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물이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 전통건축에서는 기초, 기단, 초석 등 내구성이 요구되는 요소에 석재를 많이 사용하는데, 목조건축물이 불타 없어져도 석재는 남아 있어 건물지 고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구들, 계단, 담장, 박석 등 다양한 요소에 사용되었습니다. 성곽, 석탑 등 조형적이고 상징적인 건조물에는 석재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축조하기도 하였으며, 그 수량은 목조건축보다 많습니다. 석재 전시에서는 암석 샘플을 직접 만져보며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 도구부터 다듬은 방법과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